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후보인 민형배(왼쪽)·김영록(오른쪽) 후보가 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 앞서 주먹을 쥐고 건전한 토론을 다짐하고 있다. /뉴스시스

##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돌입... 민형배 vs 김영록 진검승부

인구 320만 명의 수장이 될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예비경선과 본경선, 후보 단일화를 거쳐 12일 최종 결선투표에 돌입했다.  
 결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권리당원은 온라인 투표와 함께 직접 전화를 걸거나(인바운드) 받는(아웃바운드) ARS투표에 참여하며, 일반시민은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로 표심을 전하게 된다. 조사기관이 직접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는 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 선봉장 민형배 vs 행정 전문가 김영록’ 12~14일 단두대 매치

권리당원·여론조사 50대 50 반영... 권역별 표심·빅텐트 효과 등 변수

경선 레이스 막판 숨 가쁘게 진행된 합종연횡을 통한 빅텐트 구축과 탈락 후보 지지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은 판도 변화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선 국회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전남 동부권 주자로 경선에 나섰던 주철현 후보와의 1대 1 단일화와 정책 연대에 이어 3인 본경선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신정훈 후보측 캠프 지도부 일부, 전국국

스타급 정치인들의 공감대를 잇따라 이끌어내며 외연을 확장했다.  
 전남지사인 김영록 후보도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과 ‘행정전문가 연대’에 이어 강기정·신정훈 민주당 동지 단일화 세력, 주승훈 전 국회 부의장 등 승부처인 전남 동부권 인사들까지 끌어안는데 이어 5선의 송영길 전 당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빅텐트를 구축했다.

두 후보 모두 전남 출신 재선 의원 경력을 갖췄지만, 걸어온 길은 판판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장관과 8년 간 도시사를 지낸 ‘정통 관료형 행정가’로 안정감이 최대 강점이다. 반면 민 후보는 구청장과 정오대 비서관을 거치며 검찰 개혁 등 중앙무대에서 선명성을 증명한 ‘전투형 개혁가’다. (2면에 계속) /가동취재부

##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기억관’ 올해 말 착공 예산 협의 막바지... 목표신항만 일일 2030년 완공 목표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선체 연구 보존과 추모를 위한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배후부지 일원에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막바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수립한 ‘세월호 선체처리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업 부지는 목포신항만 배후부지 일원 3만7105㎡ 규모로 축구장 5.2개를 합친 면적에 달한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4층(높이 34m) 규모로 건축물과 야외 공원을 조성한다.

1층에는 참사 당시의 흔적이 담긴 유품품과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현대식 수장고와 자료가실 등이 들어선다.  
 2층과 3층은 방문객들을 위한 메인 전시 공간으로 상설전시관과 영상관, 기획전시실이 배치된다.  
 3층은 안전체험관과 연결동로로 이어지며,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에는 하늘공원과 전망대를 조성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별도의 추모 공간을 마련한다.  
 기존의 단순 관람형 시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안전체험관이다.  
 이곳은 시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실습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1층에서는 해수욕장 사고의 주원인인 이안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2층은 가상현실(VR) 기술을 접목한 선박 운항 체험과 재난 영상관, 사고 트라우마를 보듬는 치유실이 들어선다.  
 3층은 선박의 복원선 원리를 배우고 실전 안전 교육 등 전문적인 해양 안전 교육 콘텐츠로 채워진다.  
 건축물 밖 부지는 거대한 생명공원으로 탈바꿈한다.  
 416광장을 중심으로 ‘메모리얼 게이트’가 세워지며 나비와 바람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곳곳에 배치된다.  
 공원은 성격에 따라 희희의 숲, 시간의 정원, 상생의 정원 등으로 나누어 설계됐다. 또한 선체에서 나온 각종 반출물을 전시하는 야외 발걸 전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현재 목포신항에 가져치된 세월호 선체는 보수 및 보강 작업을 거쳐 약 1.9km를 이동해 영구 거처대로 옮겨진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전광훈 기자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아파트(중공청소/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카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물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 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소수익실현 가능)

### 시공 전후 사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